

대학스포츠 0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3. 02. 25.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스포츠 취업백서 발간

KUSF 주요 활동

대학스포츠 리그제 실상과 발전모형 연구
KUSF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대학배구리그 경기 기록실 개발
미국·일본 대학스포츠 운영
선진 사례 수집·분석

KUSF 인터뷰

강신욱 집행위원장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CONTENTS



인터뷰

- 0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을 만나다

대학리그

- 06 대학축구리그 결산
10 대학농구리그 결산
13 대학배구리그 결산

협의회 주요 활동

- 16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개발
18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19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2 UnivExpo 참가
20 스포츠 취업백서 발간 · 배포
22 국외 대학스포츠 운영 선진 사례 수집 · 분석

협의회 주요 행사

- 24 2012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26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협의회 주요 활동

- 2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 진행
29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

2012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인터뷰

- 30 관동대 축구부 권혁관
32 고려대 농구부 박재현
34 명지대 축구부 변혁주
35 충북대 축구부 양형모
36 경희대 농구부 김민구
37 명지대 배구부 하장훈

협의회 주요 계획

- 38 201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계획

총장 동정

- 40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강 신 욱 집행위원장을 만나다



Q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셨는데요.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6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A 우선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실질적인 일들이고, 또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협의회는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대학스포츠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맡고 얼마 후 체육특기자의 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도 차근차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소망해온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서 일하게 되어 기뻐고, 덕분에 눈에 안 보이는 책임감이나 사회적 의무감이 많이 생겼던 한 해였습니다.

Q 협의회가 출범한 지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협의회 출범 후 이룬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협의회가 출범 취지가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입니다. 대학스포츠를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사랑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추진한 일 중에서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운영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축구를 시작으로 농구, 배구까지 리그제를 확대 운영하게 됐고, 이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체육특기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금전 스카우트 배격, 지원서 1인 1매 발급 폐지, 경기지도자의 적절한 사회·경제적 대우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진로·취업 가이드북을 발간해 각 대학에 스포츠 관련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선수들의 취업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Q 협의회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까지 해왔듯이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활성화에 정진할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행해진 토너먼트 대회는 학생선수들의 수업 결손, 부상, 경비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홈앤드어웨이 리그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반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적합한 조건에 이르면 1~2개 종목을 추가해 리그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들이 교육자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좀 더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규직 임용 등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대학 입학,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 졸업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진출할 기회 창출을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고 봅니다.

Q 이처럼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비전에 대하여, 대학스포츠 현장의 인지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각 대학 총장님, 체육 전공 교수님과 학생, 대학스포츠 지도자, 학생 선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중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와 대학스포츠의 브랜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A 일반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상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처럼 협의회와 대학스포츠의 경우에는 학생 선수와 스포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님들, 집행위원장님과 집행위원들 모두는 이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수준 높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선수들이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선수들 개개인이 가진 좋은 자질과 태도가 선입견에 가려지지 않도록 협의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점 사업은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입니다. 협의회는 이 리그제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의 공부와 운동 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이 리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리그제의 확대를 위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A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측면은 학생선수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이는 것 또는 합리적인 리그 구성으로 모두가 찾는 스포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리그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도 리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커질 것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홈앤드어웨이와 가능하고,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으로 리그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라면,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주저할 것 없이 리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협의회는 현재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올해 이 규정이 완성되고 각 대학 간 공유하게 되면 대학스포츠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규정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규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식을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대학스포츠 구성원이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으로 인해 더욱 편해질 것으로 봅니다. 즉, 규정을 통해 무엇을 제재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지향점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를 통해 규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기술돼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비교적 시급하거나 절실한 문제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도 실제로 활동할 계획이지만 대체로 도덕적·윤리적·행정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 혹은 시정 권고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학스포츠를 포함한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라는 지향점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정상화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를 이루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임을 믿고, 협의회 또한 강한 의지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집행위원회에서도 대학스포츠의 현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대학스포츠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이 모든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목표는 금방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보미**



2012 U리그 하반기 결산

연세대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리다!

‘2012 카페베네 U리그’
8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9일, U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우승을 확정 지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리그 하반기, 72개 대학팀은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이하 추계대회)으로 인해 미뤄졌던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포함해 4~5경기씩 치렀다. 이미 13경기를 치른 전반기를 통해 챔피언십 진출 팀이 어느 정도 짐작 가능했으나, 막판 뒤집기로 챔피언십 진출권을 획득하거나 선두를 탈환하는 등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권역 4위까지 진출한 챔피언십도 흥미진진한 결과의 연속이었다. 광주대와 예원예술대는 선전을 펼치며 각각 4강, 8강까지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광주대는 16강에서 고려대를 4:0으로 꺾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강호 경희대는 챔피언십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정규리그 무패 행진의 주인공 동의대는 예선 탈락을, 또 다른 주인공 광운대는 16강 연세대전에서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숫자로 돌아본 ‘2012 U리그’

1 각 권역의 ‘일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그 결과 8개 권역의 승자가 가려졌다. 성균관대, 건국대, 광운대, 숭실대, 동의대, 영남대, 광주대, 호남대가 각 권역 선두를 차지했다. 중부

2권역의 건국대는 아주대와 접전 끝에 가까스로 1위에 올랐다. 건국대(11승 2무 3패)와 아주대(10승 5무 1패)는 승점 35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건국대(+27)가 아주대(+21)에 앞섰다. 중부 4권역 승실대와 영남 2권역 영남대는 극적으로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승실대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채 중부 4권역 3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하지만 후반기 6경기에서 5승 1무의 성적으로 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영남대도 후반기에 치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울산대를 제치고 당당히 권역 1위를 차지했다.

4 부산 동의대가 영남 1권역에서 '16경기 4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다. 동의대는 철저한 패스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했다. 짜임새 있는 조직력이 빛을 발한 것. 또 골키퍼 구상민의 활약도 한몫했다. 언제나 감독, 코치, 동료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든든한 수문장, 구상민이다. 더불어 동의대는 '45득점'의 기록이 말해주듯 막강한 공격력을 드러내며 공수 양면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동의대에 이어 광운대가 6실점으로 최소 실점 부문에서 그 뒤를 따랐다.

11 2012 U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은 부산 동아대의 11득점이다. 동아대는 지난 5월, 경북 문경대와 의 대결서 11-0 승리를 거두며 진기록을 남겼다. 이날 동아대는 전반 8분 김홍일의 골을 시작으로 이주용, 김도형, 홍현진, 서형승이 2골, 조병준, 김다용이 1골씩 넣으며 화려한 골 잔치를 벌였다. 동아대는 영남 1권역에서 동의대와 나란히 45득점을 올리며 무서운 화력을 자랑했다.

16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광운대, 동의대, 광주대가 '16경기 무패'로 리그를 마쳤다. 세 팀은 무패를 기록함과 동시에 권역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광운대는 중부 2권역에서 13승 3무로 연세대와 고려대를 따돌리고 1위 자리를 굳혔다. 동의대는 영남 1권역에서 '부산 데비' 동아대와 승점 4점 차를 벌리며 14승 2무를 기록했다. 호남 1권역의 강자, 광주대는 2위 우석대를 승점 1점 차로 간신히 누르고 11승 5무로 권역 선두에 올랐다. 광주대 축구부가 창단된 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18 호남대 정민우가 '16경기 18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자로 선정됐다. 공격수 정민우는 전명근과 투톱으로 배치돼 공격 본능을 발휘했다. 정교한 슈팅력, 적절한 슈팅 타이밍, 골 결정력을 두루 갖춘 정민우가 맹활약을 펼친 것. 결국, 호남대가 호남 2권역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정민우에 이어 한홍규(성균관대, 16득점), 황의조(연세대, 13득점)가 권역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47 2012 U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한 팀은 바로 중부 1권역에서 16경기 47득점을 터뜨린 성균관대다. 경기당 약 3골을 터뜨린 셈이다. 지난 6월에는 김상필의 헤트트릭으로 한민대에 9-0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팀 내에서는 4학년 한홍규가 16골을 넣으며 200% 이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성균관대의 화끈한 공격은 그물망 같은 수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앙수비수 권영진과 이주영을 중심으로 강한 압박 수비와 빠른 공수 전환은 가히 압권이었다.

물음표투성이, 챔피언십 무대

8개 권역에서 상위 4팀씩 총 32팀이 챔피언십 무대에 올랐다. 중부 1권역에서는 선문대가 배재대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고 가까스로 챔피언십에 나섰다. 중부 2권역과 중부 3권역의 4팀은 무난히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했고, 중부 4권역의 청주대는 후반기 순위 변동에 노려봤으나 단국대를 제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영남 1권역 역시 4팀이 손쉽게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한편, 영남 2권역에서 전주기전대가 후반기에 선전을 펼치며 부경대를 따돌리고 극적으로 챔피언십 진출권을 따냈다. 호남 1권역의 4팀도 일찌감치 순위를 확정 지었고, 호남 2권역에서는 초당대가 동신대에 앞서 간신히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십 무대인 동해로 향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중부1권역				영남1권역			
성균관대	동국대	관동대	선문대	동의대	동아대	대구대	인제대
중부2권역				영남2권역			
건국대	아주대	홍익대	수원대	영남대	예원예술대	울산대	전주기전대
중부3권역				호남1권역			
광운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광주대	우석대	조선대	서남대
중부4권역				호남2권역			
송실대	용인대	경희대	단국대	호남대	전주대	대불대	초당대

2012년 10월 26일부터 강원도 동해 일대에서 열린 '2012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에 참가한 32개 팀은 조별리그를 통해 16강 진출 팀을 가려냈다. 각 권역 순위에 따라 8개 조가 편성됐다.

32개 팀 조별리그

1조에서는 광운대가 진땀을 뺐다. 단국대에 3-2로 이겼지만, 관동대에 1-0으로 패한 것. 결국, 광운대는 단국대와 골 득실은 같지만, 승자 승 원칙에 따라 관동대와 나란히 16강에 진출했다. 2조에서는 동국대와 광운대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경희대는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3조에서는 조선대와 성균관대가 함께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4조의 영남대와 용인대는 파죽지세로 2승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면모를 보였다. 반면, 5조에서는 예원예술대가 이변을 일으키며 홍익대와 16강에 나섰다. 예원예술대의 돌풍으로 정규리그 '무패' 동의대가 16강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6조의 건국대와 연세대 역시 가볍게 2승을 챙겼고, 7조에서는 동아대와 인제대가 만만치 않은 실력으로 호남대와 고려대에 맞섰지만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고려대는 동아대와 인제대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본선에 오를 수 있었다. 8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울산대, 송실대가 활짝 웃었다.

16강! 본격적인 전쟁 돌입!

10월 30일, 16강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대와 예원예술대는 챔피언십을 다시 한 번 떠들썩하게 했다. 광주대는 주장 국승은이 2골을 넣는 활약으로 고려대를 4-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통 강호' 고려대를 제압한 '신흥 강호' 광주대였다. 예원예술대는 조선대를 2-0으로 누르고 8강에 안착했다.

연세대와 광운대가 16강에서 만났다. 결과는 연세대의 3-1 승. 이로써 연세대는 정규리그 패배를 설욕했다. 용인대와 울산대는 각각 호남대와 관동대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고, 성균관대와 건국대는 홍익대와 동국대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이뤘다. 한편, 송실대는 영남대와 경기에서 전반에



만 두 골을 내줬다. 후반 추가시간에 김태경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숭실대는 2012 U리그에 새롭게 참가한 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8강, 4강!

11월 1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예원예술대, 건국대, 영남대, 연세대가 각각 호남대, 울산대, 성균관대, 광주대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특히 성균관대와 영남대전이 단연 명승부로 꼽힌다. 1-1 전반 종료 후 후반에 성균관대 최영효가 퇴장을 당하면서 영남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마침내 후반 추가시간 영남대가 행운의 PK를 얻었으나 실축,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성균관대는 한 차례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고, 영남대가 세 차례 골망을 흔들며 힘겹게 4강에 올랐다. 예원예술대는 후반 종료 직전 탁현수의 결승골로 호남대를 2-1로 이겼다. 예원예술대는 목표했던 4강 진출에 성공하며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건국대는 김범용 도움, 김용진 득점으로 1-0 승리를, 연세대는 김민수의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광주대에 1-0 승리를 거뒀다.

준결승이 열린 11월 3일, ‘예원예술대-건국대’와 ‘영남대-연세대’의 대결이 벌어졌다. 건국대가 먼저 결승에 올랐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90분이었다. 건국대 박준희가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2분 뒤 예원예술대 나효성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말았다. 후반 13분, 건국대 김범용이 추가 골을 넣어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지만, 팀의 주축인 김범용, 김민기가 이날 경고로 결승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어서 펼쳐진 영남대와 연세대의 대결에서는 연세대가 3-0 완승을 했다. 올해 춘·추계연맹전에서 모두 맞닥뜨렸던 영남대와 연세대. 춘계연맹전 준결승에서 연세대가 영남대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추계연맹전 결승에서 영남대가 승부차기로 연세대를 꺾으며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 있다. 이번 챔피언십에서 연세대는 남승우, 유성기, 김현수의 득점에 힘입어 영남대에 설욕의 승리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연세대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끌어올렸다.

연세대, 안방에서 우승컵을 들다!

11월 9일, 2012 U리그의 마지막 승부가 열렸다. 그 주인공은 건국대와 연세대. 양 팀 모두 홈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중 수가 더 많은 연세대 운동장에서 결전이 치러졌다. 차·포를 잃은 건국대는 전반 초반까지 안정된 수비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연세대가 차츰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후반 20분 연세대 1학년 최치원이 결승골을 넣으며 1-0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로써 건국대는 준우승에 그치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연세대는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 번이나 들어 올렸다. 2012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연세대가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보미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리뷰

경희대, 대학리그 천하통일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는 말 그대로
경희대 천하였다. 시즌
내내 독주를 이어가더니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중앙대를 제압,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희대만 돋보인 것은
아니었다.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는 출범 후 3번째 시즌을 맞아 전체적인 경기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순위 경쟁도 치열했고, 우수한 선수도 많이 배출됐다.

경희대 독주, 아무도 못 말려

‘3학년 트리오’의 활약이 빛났던 시즌이었다. 프로에서도 탐내고 있는 센터 김종규와 ‘가드 콤비’ 두경민-김민구의 선전 덕분에 시즌 내내 힘을 발휘했다. 경기수가 많아지면서 1~2년쯤은 경기력이 떨어질 법도 한데, 경희대는 그런 기복이 없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었다. 속칭 ‘안 풀리는 경기’에서조차 누군가 해결사가 되어 실마리를 풀어줬다.

특히 1라운드 고려대와의 경기는 2012년 대학리그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당시 경희대는 김민구의 버저비터로 짜릿한 승리를 선사했다. 패자조차도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대학생 특유의 패기와 농구의 매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경기였다.



치열한 순위 경쟁

2012년 대학리그는 경희대와 함께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가 'BIG 4'로 꼽혔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주목해야 할 학교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전력이 평준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리 싸움’도 치열했다.

그 중 동국대는 놀라운 기세로 연세대를 따라잡아 14승 8패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서대성 감독의 리더십이 빛났던 동국대는 신입생 서민수와 이대현을 앞세워 신구, 내외곽의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대학리그 중계를 맡았던 김남기 해설위원은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동국대는 이를 해냈다. 그만큼 훈련도 열심히 했고, 서대성 감독이 잘 이끌었다는 증거다”라고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중앙대는 잦은 부상 속에서도 대학리그 공동 2위와 함께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장재석, 임동섭, 김현수, 정성수, 유병훈 등 주축을 이룬 선수들은 대학리그 종료 후 열린 프로농구 드래프트에서도 모두 프로팀에 선발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달라진’ 고려대는 중앙대와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박재현의 노련한 게임운영과 함께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 문성곤, 이승현이 활약해준 덕분이다. 2013년에는 신입생 이종현이 가세한 만큼 좀 더 강력한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통의 강호 연세대는 박경상, 전준범, 김민욱 등 주력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동국대에게 공동 4위 자리를 허용했다.

악재 딛고 유종의 미 거두다

성균관대는 코트 안팎에서 부상과 운영상의 문제 등 여러 악재가 뒤따랐지만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건국대도 주축선수인 이대혁이 시즌아웃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위권 도약에 대



한 의지를 불태워 박수를 받았다. 단국대는 김명진, 조상열의 졸업 이후 전력이 약화됐으나, 득점/리바운드 / 2 점슛/자유투 등 대학리그 시상식서 4관왕을 차지한 ‘팔방미인’ 김상규를 앞세워 7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상운 신임감독을 앞세운 상명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최하위를 면했다.

스포츠마케팅 새 바람

경기력이 향상되고, 리그가 평준화 되면서 강팀이 약팀에게 잡히는 등 흥밋거리가 많았던 2012년 대학리그였지만,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바로 대중과 재학생들에게 대학 농구의 매력을 알리는 일이 그것이었다. 케이블 및 인터넷 중계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갔으나, 내외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외중에 한양대가 시도한 재학생 대상 마케팅 활동은 대학리그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갖가지 이벤트를 동원, 그들을 홈 경기장으로 이끌었다. 마침 한양대 특유의 빠른 농구도 시종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고, 경기 후 싸인 및 사진 공세가 이어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대학리그가 미 대학농구(NCAA)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농구팀 경기를 즐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양대의 성공사례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2013년에도 코트 밖에서도 화젯거리가 풍성한 대학리그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글. 손대범 월간 점프볼 편집장





2012 대학배구리그 추계대회 결산

성균관대, 대학배구 왕좌를 거머쥐다!

마침내 성균관대는
추계대회 챔피언결정전
마지막 날 치러진
경기대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경기대의 우승 행진은
중단되었고, 성균관대가
우승컵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성균관대가 경기대를 꺾고 대학배구 최강자로 등극했다. 최근 대학배구는 경기대 천하 그 자체였다. 2011년 춘계대회부터 2012년 종별선수권대회까지 경기대가 우승 가도를 달리는 동안, 성균관대는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성균관대는 우승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내 훈련에 매진하여 우승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2012년 가을 대학배구 왕좌를 거머쥔 성균관대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풍부한 선수 자원이다. 전광인, 심정섭, 구도현, 오재성은 추계대회 직전 열린 AVC컵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뛰어난 경기력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이용한 플레이는 대회 초반부터 눈길을 끌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전광인은 거침없는 공격을 구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강한 공격에 비해 불안한 서브리시브는 팀의 약점으로 꼽혔지만, 경기를 거듭하며 수비 역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수 양방이 탄탄한 팀으로 거듭났다. 수비가 강화되면서 랠리 상황에서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경기를 치르며 더욱 견고해진 성균관대는 마침내 경기대를 3:0으로 제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경기대, 아쉬움이 묻어나는 준우승

경기대에 있어 2012 대학배구리그 추계대회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패행진을 이어오던 경기대는 정규리그에서 만난 홍익대에 3:0으로 완패당했다. 이는 대학배구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이후 경기대는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난 성균관대에도 패했고, 대학배구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대표로 소집된 송명근의 부재가 컸다. AVC컵 국가대표 활약 후 복귀한 박진우, 이민규, 송희채의 피로누적도 경기대의 발목을 잡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규민이 분전했지만, 1위 자리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기대는 성균관대에 밀려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홍익대, 리그 무패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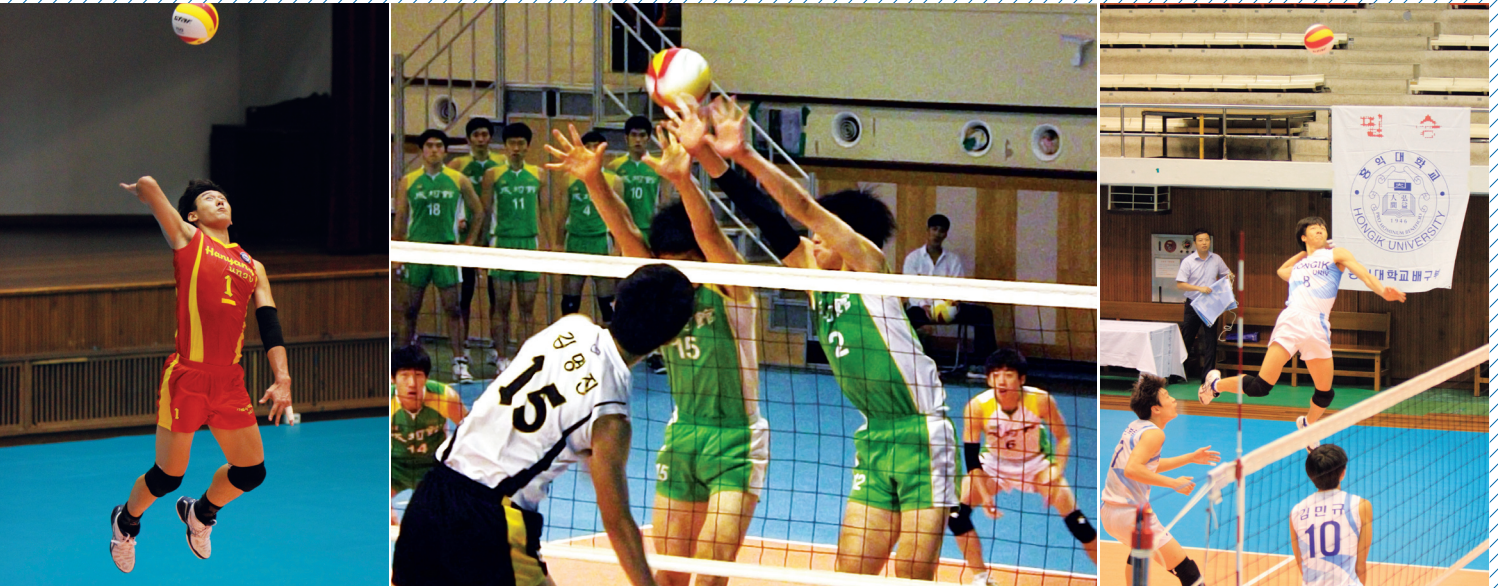
홍익대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간 편이었다. 홍익대 신진식 감독은 다양한 카드를 활용, 강팀과의 경기를 대비했다. 그 결과 정규리그에서 경기대의 무패행진을 저지하며 파란을 예고했다. 선수 개개인의 성장도 괄목할만했다. 청소년대표로 소집된 김재원의 부재가 우려되었지만, 구본택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그 공백을 완벽히 커버했다. 하지만 대회 후반부인 챔피언결정전에서 잦은 범실로 경기대와 성균관대에 연이어 승리를 내주었다. 결국, 홍익대는 한양대와의 경기에서만 승리하며 1승 2패, 3위에 머물렀다. 최근 성장 가도를 달리며, 대회 시작 전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홍익대로선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

한양대,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

한양대는 2012 대학배구리그 추계대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뛰어난 선배들의 졸업 이후,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한양대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 한양대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선보이며 계속된 부진의 설움을 씻는 데 성공했다. 그 중심에는 팀의 양 날개, 레프트 김재훈과 라이트 김명진이 있었다. 한양대는 선수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4강에 안착했다. 하지만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가 불안해졌고, 강서브를 무기로 하는 팀컬러도 열어졌다. 결국, 한양대는 챔피언결정전 세 경기에 모두 패해, 대회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인하대, 아쉬운 4강 탈락

아쉽게 4강에 들지 못한 학교가 있다. 바로 인하대이다. 인하대는 2011 추계대회 5위의 아픔을 딛고, 2012 춘계대회에선 3위로 도약했다. 황두연, 조진구 등 새내기들의 활약에 힘입은 결과였다. 하지만



2012 추계대회를 앞두고 황두연이 청소년대표로 소집되고, 장신센터 천종범이 부상을 당하며 팀 전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하대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새로 배치하는 전술을 펼쳤다. 하지만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였다.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빠른 발전 속도를 보였지만, 정규리그 3승 4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경희대, 주장 이강원의 분전

경희대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경희대는 남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된 주장 이강원을 필두로 공격을 전개했다. 하지만 모든 경기를 원정경기로 치르며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돼, 아쉬운 플레이가 계속되었다. 인하대, 명지대, 조선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인하대에 승점으로 뒤져 대회를 6위로 마감했다.

명지대와 조선대의 피할 수 없는 경쟁

우승쟁탈전만큼이나 최하위를 피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명지대는 춘계대회 8위라는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가을,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코트 위에 섰다. 조선대는 승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 빠른 배구로 맞섰다. 하지만 대회 첫날, 명지대가 조선대에 승리를 거둔 것이 주효했다. 자신감을 얻은 명지대는 개막전 승리를 시작으로, 강팀을 상대로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비록 1승에 그쳐 리그 7위에 머물러야 했지만, 하위권 탈출의 가능성을 엿본 대회였다. 반면 조선대는 이준영의 선전에도 승리를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다.

2012 대학배구리그 추계대회에선 대학배구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고, 새로운 선수들이 주목받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된 만큼 재미있는 경기들도 속속 등장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우선 올봄부터 2부 대학 경남과학기술대, 중부대, 충남대가 1부 리그에 합류한다. 그리고 각 팀은 11개 대학이 치르는 첫 번째 대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계절을 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대학배구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느새 2013 대학배구리그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새롭게 시작하는 리그에선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



2011년, 대학배구리그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2010년 대학축구리그와 대학농구리그가 정식 출범한 데 이어 대학배구리그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지원하는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도입 종목은 세 종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배구리그 도입 1년 차, 홈앤드어웨이 리그제를 처음 경험한 현장은 리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리그제 도입 취지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두고 현장의 평가는 분분했다. 특히 ‘공부와 운동 병행’을 몸소 체험한 학생선수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 선발된 진성태 학생선수는 “고등학교 때는 오전부터 운동해서 수업 참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교에 와서 홈앤드어웨이로 경기를 치르면서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하게 되었다.”며 생각을 밝혔고,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던 한 학생선수는 “리그제가 도입되며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강의를 들으며 친구도 사귄 수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훈련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고 경기력도 많이 향상되었다.”며 리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몇몇 학생선수는 “고등학교 때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갑자기 공부가 흥미 붙이기가 힘들다.”, “리그를 치르며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단 학생선수뿐만이 아니다. 리그제 현장 최전선에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역시, “지난 2년간 리그를 경험해보니 기존 대회보다 학생선수들의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었다.”며 리그제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학교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길 내심 바라고 있다. 바로 며칠 뒤 시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선뜻 공부하라고 하긴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도입 후 현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는 결국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협의회는 리그제 도입 취지와 현장 의견을 잘 종합해 ‘리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이루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리그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이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인식 전환을 통한 실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리그제가 도입되었는데 변한 게 없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협의회는 리그제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이다.

“12월 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2011 KB 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개인상 13개 부문, 단체상 7개 부문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대학배구리그에도 시상식은 있다. 하지만 대학농구리그와 큰 차이가 있다. 수상자를 정규리그가 아닌 챔피언결정전에서 뛴 학생선수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중략) 농구의 경우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덕분에 팀 성적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각 학생선수는 자신의 기량을 인정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 모든 정규리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사

“대학배구리그 1년, 아껴둔 이야기를 듣다.” 중 발췌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서혜연

협의회는 지난해 6월,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을 오픈했다. 대학농구리그의 공식 기록을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기록 전산화가 이루어진 데 이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음을 의미한다. 2010년 출범, 리그제 도입 3년 차 만에 경기 기록실을 구축한 대학농구리그와 달리 대학배구리그는 기록 시스템 자체가 전무한 상황. 경기 후 공식 기록은 ‘승패’와 ‘세트스코어’ 정도가 전부였다. 대학배구리그의 팬은 물론, 경기를 뛰는 학생선수도 자체 기록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나마 경기 결과 정도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학배구연맹이 벌인 설문에서 50%가 넘는 학생선수가 경기 결과 확인을 위해 ‘다른 팀 학생선수와 전화를 한다.’고 응답했다.) 공신력 있는 전산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기록을 서비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대학농구리그처럼 리그 종료 후 시상식을 할 수도, 어떤 학생선수의 기량이 발전했는지 알 수도 없었다. 대학배구리그는 지난해부터 승점제를 도입하여 세트스코어 3대 0 또는 3대 1로 이긴 팀에는 승점 3점을, 3대 2로 이긴 팀에는 승점 2점, 진 팀에는 승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 결과 뿐 아니라 경기 과정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스포츠를 교육의 일환으로 여기고, 대학리그를 통해 학생선수의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껏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을 뿐이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공개 입찰을 통해 강남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연구소장: 이세호 교수)가 개발을 맡았으며, 개발 내용은 ▲대학배구리그 기록 입력 프로그램 개발 ▲대학배구리그 기록 보고서 프로그램 개발 ▲확장성과 호환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이다.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대회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각 협회에서 이를 도입할 예정임을 고려해 두 시스템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 중이다.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이 완성되어 현장에 도입되면, 경기 결과, 경기 선수 통계, 팀 순위, 팀 누

적 통계, 선수 누적 통계, 부문별 팀 순위, 부문별 선수 순위 등 7개 부분의 DB 구축 및 보고서 출력이 가능해진다. 대학배구리그의 공신력 있는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선수와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리그의 수준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협의회는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도입 후 우선 현장에서 각 팀과 언론사 등에 기록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홈페이지 내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을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 것처럼 별도의 작업을 거쳐 대학배구리그 경기기록실을 구축해 팬들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대학배구리그는 도입 3년 차를 맞이한다. 리그 첫해부터 리그에 참여한 경기대 등 8개 대학을 비롯하여 2부에서 1부로 승격한 경남과학기술대, 중부대, 충남대가 참여해 총 11개 대학이 리그를 치를 계획이다. 리그 참가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일정도 달라진다. 대학배구리그의 외적 성장만큼 내적 성장도 중요하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은 리그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시스템’ 가동으로 기록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대학배구리그는 그간 단순히 승패만 전하던 ‘결과 중심’의 리그에서 벗어나 경기 내용을 전하는 ‘과정 중심’의 리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리그의 공신력을 높임은 물론, 대학스포츠가 교육의 일환으로 대학리그를 통해 학생선수의 성장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운영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학스포츠’를 검색하면…!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학스포츠”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이트, 바로 “대학스포츠 블로그”이다. 2011년 9월 개설 이후, 대학스포츠 블로그는 대학스포츠 현장 곳곳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만들어 나가는 일꾼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이다. 대학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블로그 개설과 더불어 제1기가 출범했고,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3기, 경기장 내 · 외 소식 전하며 중형무진 활약!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 제3기 기자단은 대학스포츠 현장 곳곳을 누비며 활약했다.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리그 경기가 열리는 각 대학 경기장은 물론, 대학축구리그 챔피언십이 치러진 동해 웰빙레포트타운과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챔피언결정전이 치러진 용인 실내체육관, 단양 문화체육센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취재 열정을 불태웠다. 제3기 기자단의 열정은 대학리그 현장 밖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강원도 태백과 강원도 양구에서 각각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과 전국추계1, 2학년대학축구대회 소식을 전했으며, 경북 영주에서 MBC 대학농구대회도 취재했다. 기자단의 활동 범위가 비단 축구 · 농구 · 배구 경기 현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제93회 전국

체육대회와 2012 광주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대학생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라면 어디든 찾아가 취재했다.

이처럼 대학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경기장 밖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대학스포츠 활성화’라는 주제로 대학 학생회와 응원단을 취재하기도 했고, ‘대학스포츠 동아리’ 소식으로 연세대 라크로스 동아리를 취재하고,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선수권대회와 전국대학남녀9인제배구대회를 취재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리그 네 번째 종목, 과연 무엇?’과 ‘눈물로 내려놓은 태극마크 - 학업과 운동 사이, 동전의 양면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대학생의 관점으로 대학스포츠 현안을 되짚어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의 이름으로 2012UnivExpo에 참가, 대학스포츠 블로그 개설 이래 최초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며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알리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제3기 기자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열린 수료식을 끝으로 그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기 우수기자로는 기자단 최초의 사진기자로서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제공하여 블로그를 빛낸 김윤찬 학생기자(동국대 영화영상학)와 ‘용감한 멘토들’이라는 기획기사 시리즈 연재를 통해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눈 김창용 학생기자(동국대 체육교육), 그리고 제2기에 이어 제3기에서도 활동하며 ‘슈퍼스타U’ 코너에서 대학축구리그의 숨은 주역들을 소개한 이보미 학생기자(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가 선발되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4기 명단

강 주 희	(고려대 지리교육)
권 수 정	(경성대 광고홍보)
김 예 슬	(연세대 스포츠레저)
김 유 진	(경기대 스포츠경영)
김 지 영	(연세대 중어중문)
이 무 룡	(중앙대 신문방송)
이 민 영	(성균관대 화학공학)
이 병 진	(한양대 체육)
이 선 영	(중앙대 경영)
이 혜 은	(동국대 신문방송)
정 유 리	(홍익대 법)
지 슬 기	(연세대 정치외교)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4기, 힘찬 출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3기에 이어 올해 1월, 제4기가 새로이 선발되었다. 제4기는 취재기자 10명, 사진기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5일 제1차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첫 기획회의에서 대학축구·농구·배구리

그 소식뿐 아니라 대학 내 여성스포츠,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학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제4기 기자단은 대학스포츠 블로그가 질적, 양적으로 그 외연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2012 유니브엑스포에 참가해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적극 홍보했다.

유니브엑스포(UnivExpo)는 대학생 진로, 동아리, 대외활동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로 2010년 제1회 유니브엑스포 개최 후 매년 개최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2 유니브엑스포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국민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틀간 펼쳐진 유니브엑스포에는 양일 2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찾아 대학생활에 필요한 진로, 동아리, 대외활동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니브엑스포에 처음 참가한 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기업&NGO 부스 18번 부스를 배정받아 양일간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유니브엑스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인 만큼 협의회 사무국의 지원 아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이 행사 기획, 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제1기와 제2기 기자단으로 활동한 박소정 명예기자(숙명여대 법학)가 주축이 되어 제3기 기자단 전원이 홍보 기획을 맡아 홍보 아이디어를 냈다. 대학스포츠와 대학축구·농구·배구를 알리기 위해 대학스포츠TV 경기 영상 재생, 대학리그 포스터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사 스크랩 전시 등을 기획했고, 대학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게임을 준비했다. 협의회 부스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은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퀴즈'와 '대학스포츠 운동부 유니폼 체험 이벤트'였다. 부스를 찾은 대학생들은 축구, 농구, 배구 상식과 대학리그 관련 퀴즈를 풀며 대학스포츠를 접하고, 10문제 이상을 맞추며 대학스포츠 관련 지식을 뽐낸 이들은 스포츠 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받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부스 앞은 기자단이 준비한 대학스포츠 운동부 유



니폼을 입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대학생들로 붐볐다.

유니브엑스포 양일간 오전 일찍부터 오후까지 열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우리 기자단과 부스를 방문해 참여한 대학생들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홍보를 위해 준비했던 대학스포츠 제3호 800부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리플릿 1,000부도 모두 배포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정적인 대학생들이 모인 대학 현장에서 대학스포츠를 홍보하며, 대학스포츠를 만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대학생들에게 대학스포츠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근함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즉 유니브엑스포를 비롯하여 대학생이 있는 곳을 두루 찾아다니며 대학스포츠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2 UnivExpo 참가

스포츠

취업백서 발간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진로가이드북,
스포츠 취업백서”

‘대학생의 관심사? 취업, 진로설계’

최근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실시한 ‘대학생의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돈, 취업, 진로설계 순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대학생의 주요 관심사가 취업, 진로설계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 시대에 많은 대학생이 ‘캠퍼스의 낭만’은 잠시 접어둔 채, 소위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며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학생의 약 75%가 ‘복수전공을 하거나, 할 계획’이고, 그중에서 약 40%가 그 이유로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는 한 조사 결과는 ‘학문의 전당’에서 취업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상경계열 복수전공을 선호하는 데 반해, 정작 상경계열 4학년 중 52%가 ‘취업을 못해’ 졸업을 연기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취업 고민은 ‘전공 불문’인 셈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 출범 이래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는 중점 사업으로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리그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전인적 스포츠 인재 양성이자, 즉, 학생선수가 졸업 이후에 프로(혹

은 실업)에 진출하여 엘리트선수로 활동하거나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선수 대부분은 프로 진출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한체육회의 2011년 대학 학생선수의 졸업 후 진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 25%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인기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학생선수의 평균 취업률은 15%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야구 등 인기종목 학생선수가 대학 졸업 후 해당 종목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하는 비율이 40%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밝힌 것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더욱이 2011년 기준, 전국 대학생의 평균 취업률 60%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일까? 단순히 ‘학생선수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며 운동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엔 그 격차가 너무 커 보인다.

지난해 3월, ‘스포츠산업 잡페어 2012’에 참가한 협의회는 취업을 앞둔 스포츠전공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협의회 부스를 찾은 이들 중에는 학생선수 출신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운동 이외의 길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운동을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라며 오로지 나의 길이라 여겼던 운동을 그만두고 진로·취업의 길 위에서

방향성을 잃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리그제를 실시한다고 들었다. ‘우리 때 리그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반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얻고, 그럼 좀 덜 막막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드래프트를 앞둔 4학년 학생선수 인터뷰는 협의회가 운영 중인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의 단골 취재거리다. 이 인터뷰 기사에는 종종 ‘취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취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된다.’거나 ‘취업하고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 등의 멘트가 자주 등장한다. 이 기사를 본 한 대학생은 “기사를 보고 학생선수들이 ‘취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리 신기할 일도 아니다. 학생선수도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이다. 당연히 취업 고민을 한다. 일반학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진로 탐색을 할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를 운영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협의회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아이디어를 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가의 취업 열풍과 더불어 각종 진로취업 가이드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선수와 체육전공자를 위한 진로 취업 가이드북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주목했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학생선수와 더 나아가 체육전공자가 희망하는 진로를 찾고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지 찾아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선수와 체육전공자가 체육교사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시각에서 엄선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노하우를 보냈다. 학생선수와 체육전공자가 장점인 열정과 패기를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 분석했다. 의외로 관련 직업이 적지 않았다. 최종 34개의 직업을 선정, 직업 소개, 준비 사항 등을 담아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가이드북, 스포츠 취업백서’를 발간했다.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가이드북’은 총 250여 페이지,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에는 스포츠 관련 34개 직업을 소개하고 이 직업이 하는 일, 필요역량, 연봉과 근무환경, 비

전과 경력개발, 전문가 조언 등을 담았으며, 스포츠 전공인 출신 직업인 인터뷰를 담아 보다 생생하게 직업을 소개하고자 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취업 전략을 담았다. 진로 탐색 방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등 취업 전략을 소개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증과 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협의회는 2012년 10월 31일, 이 책을 발간하고, 전국 51개 회원대학을 비롯하여 체육대학을 보유한 150여 개 대학에 배포하였다.

2012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최우수상의 주인공, 고려대 박재현 학생선수는 “학생선수는 욕심이 많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여건만 주어진다면, 공부와 운동 두 가지 모두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협의회와 각 대학의 몫이다. 대학스포츠가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을 다해 학생선수가 대학 교육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진로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선수가 어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로취업 안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학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가 사회에 진출해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목 차	
PART1 학생선수와 스포츠 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가이드북	
체육 교육 계열	8
체육 학문 계열	34
체육 공공기관 계열	41
스포츠 미디어 계열	52
스포츠 의학 계열	69
스포츠 산업 계열	85
기타 계열	108
스포츠 직업인 인터뷰	117
PART2 학생선수와 스포츠 전공자를 위한 취업가이드북	
취업의 정답, 바로 시작에 있다 (이영준 기자)	138
입사 지원서를 살리는 스토리의 힘 (김기재 기자)	161
면접의 지름길 (민정 기자)	191
PART3 부록	
1급 경기지도자	228
2급 경기지도자	232
1급 생활체육지도자	238
2급 생활체육지도자	242
3급 생활체육지도자	248
스포츠경영관리사	253
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254

국외 대학스포츠 운영 선진 사례 수집 · 분석

대학스포츠의 정상화, 활성화, 선진화를 이루고자 크고 작은 대학스포츠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2년 5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시 '대학스포츠 운영 관리 규정' 마련을 공표했다. 그 세부 내용으로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운영 선진 시스템을 갖춘 미국과 일본의 '대학 운동부 운영 선진 사례'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

협의회는 그간 꾸준히 국외 대학스포츠 운영 선진 사례의 수집 · 분석에 힘써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매뉴얼 중 핵심 분야 11개 규정 번역과 5개 규정 감수 및 심층 요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 Kimberly Ford 국장(Director of Minority Inclusion)의 한국 방문 시 협의회 엄현희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NCAA 기구와 미국 대학스포츠 경기 · 훈련과 학업 간의 균형에 대한 대학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을 위한 일본 출장

국외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의 일환으로 일본 대학스포츠 운영 사례 수집을 위해 협의회 박태섭 집행위원과 김민희, 김정현 직원이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쓰쿠바 출장을 다녀왔다. 일본 대학 운동부를 운영하는 와세다대학, 쓰쿠바대학과 일본 대학스포츠를 관장하는 문부과학성, 일본대학체육연합(JAUPES)에 방문하여 일본 대학스포츠 운영 현장을 견학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을 했다.

협의회 박태섭 집행위원과 직원들은 10월 30일 오후 일본 도쿄 도착 후, 31일 와세다대학교 도야마 캠퍼스 35번 건물, Athletic Center에서 히로시 가와구치 센터장과 타가노리 미야우치 스포츠과학부 교수 등 Athletic Center 관계자 4명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일본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튿날에는 도쿄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쓰쿠바로 이동, 쓰쿠바대학교 체육전문학군 히로시 사나다 학군장과 면담하고 쓰쿠바대학교 체육 시설을 견학했다. 협의회 출장단은 와세다대학과 쓰쿠바대학 방문을 통해 일본 대학의 운동부 운영 기본 방침, 학생선수의 대학입

시 관련 사항, 학생선수 학사관리 관련 사항, 운동부 지도자 관련 사항, 체육 시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묻고, 일본 대학 운동부 운영 사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학생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더라도 일체의 특혜는 없다.”



와세다대학 Athletic Center 가와구치 센터장은 한 학년에 800명, 약 3,200명의 학생이 44개 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와세다대의 교육 목표는 제대로 된 사회인 육성이다. 스포츠 역시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와세다대 운동부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쓰쿠바대학 사나다 학군장은 “쓰쿠바대의 학생선수 교육 목표는 스포츠과학 교육을 통해 학생선수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학생선수도 예외 없이 오후 4시 30분까지 무조건 정규 수업을 하고 2시간 정도 운동부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하며, “학생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되더라도 학사관리에 대한 일체의 특혜는 없다.”고 덧붙였다. 와세다대학과 쓰쿠바대학 모두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딸만큼 출중한 경기력을 보유한 국가대표 학생선수가 재학 중이지만 이들의 학사관리를 위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질문에는 “국가대표로서 운동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은 휴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체육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스포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일본대학체육연합(Japanese Association of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이하 JAUPES)은 대학교육에 있어 체육에 관한 연구조사



1 문부과학성 2 와세다대학 3·4 쓰쿠바대학 5 JAUPES

와 체육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이다. 노무라컨퍼런스프라자 48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출장단과 면담한 JAUPES의 모로오카 후미오 섭외이사와 고바야시 가즈노리 전무이사는 JAUPES의 임무, 주요 사업, 비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모로오카 섭외이사는 “일본에는 미국 NCAA 같은 기관이 없다.”고 말하며, “JAUPES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체육 교육이다. 대학에서 체육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스포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며 JAUPES의 비전을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 대학스포츠 운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일본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학교 체육을 통해 국민이 스포츠와 친해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협의회 출장단은 일본 출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을 방문하고 기요치 이치카와 스페셜리스트를 포함, 담당자 5명과 면담했

다. 각 분야 담당자는 일본이 2011년 수립한 스포츠 기본법과 이를 토대로 2012년 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의 개요와 초·중·고·대학의 스포츠 시설 관련 내용, 국민체육대회 관련 내용, 엘리트 및 국가대표 선수 육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스포츠기본계획 담당자는 “전 생애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체계화를 통해 일관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학교 체육을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와 친해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이 대학스포츠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대학이 스포츠 인재 양성과 스포츠 기술 및 지도 방법 개발,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엘리트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간략한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4박 5일간의 일본 출장을 통해 일본 학원 및 대학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관과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주요 자료는 일본 대학스포츠 전문가 김정호 박사가 번역하였으며,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 선진 사례’ 수집과 분석에 더욱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2년 11월 23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2012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201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날 워크숍에는 협의회 51개 회원대학 및 홈앤드어웨이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각 대학 축구, 농구, 배구 팀 감독, 코치와 체육위원(부·실)장, 체육부 행정담당자가 참석해 대학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KUSF 사업 실적과 계획,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 모형,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주제로 워크숍 진행**

워크숍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인 단국대 강신욱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강 위원장은 협의회 2012년 사업 실적과 성과를 설명하고, 2013년 사업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을 비롯하여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발표, 2014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수립 참여,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스포츠

2012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취업백서' 발간·배포, 대학스포츠TV 개국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2013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과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북대 스포츠사회학연구실 이혁기 공동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주제는 경북대 스포츠사회학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으로, 연구팀에서 수립한 연구 계획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혁기 공동연구원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학생선수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대학스포츠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스포츠 리그제를 점검하기 위해 SWOT 분석 기법에 따라 각 리그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리그제의 개선방안과 궁극적 발전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옥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장 교수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해 불거진 경기 조작이나 그간 문제시된 선수 인권 경시 등으로 인한 스포츠 정신의 실종을 연구 배경으로 소개하며, 일회성 대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스포츠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표준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태 조사 항목은 대학스포츠 윤리·아마추어리즘, 조직, 학생선수 선발·학사 관리·복지, 지도자 채용·자격기준, 재정·마케팅, 징계·강제이행, 분쟁조정위원회 총 8개 섹션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이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확립된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대학스포츠의 중요한 사안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대학스포츠 운영 현황 조사 및 국외 대학스포츠 선진 사례 수집 중에 있으며, 이 연구는 2013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도자들의 열띤 의견 개진, 협의회와 현장의 소통의 장

세 가지 주제 발표에 이어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주제 발표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경기지도자들이 종목별 현안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발표자들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선수 선발권, 프로스포츠에 대한 대학스포츠 보호 방안, 종목별 마케팅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제기되었다. 서면 조사로는 알기 어려운, 대학스포츠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날 제시된 현안과 문제점들은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서 협의회의 업무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2010년, 한국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해결하고, 연구·협의·조정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모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출범했다. 출범 3년 차이 접어들면서, 선진형 대학스포츠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다. 하지만 대학스포츠의 폐단을 근절하고, 정상화·활성화·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스포츠 현장과 소통하는 경기지도자 워크숍은 더욱 값진 의미를 갖는다. 대학스포츠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협의회와 현장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의 목소리. 이처럼 협의회와 현장 지도자 간의 상호협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2012년 12월 12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룸에서 '2012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장호성 KUSF 회장(단국대 총장)을 비롯하여 회원대학 중 29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고, 집행위원과 종목별 우수 지도자,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 선정된 수상자들도 자리했다.

오후 5시, 장호성 KUSF 회장의 개회사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장호성 회장은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대학스포츠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 대학스포츠가 직면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다시 한 번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각 대학 총장님과 체육위원장 그리고 대학스포츠 리그를 후원하는 KB금융 등 후원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개회사를 매듭지었다.

2012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정기총회

201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13년도 사업 계획 의결

본격적인 총회는 강신욱 KUSF 집행위원장이 2012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을 도출하고자 경북대학교 스포츠사회학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NCAA를 모델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수립을 위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규정을 개발 중에 있음을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금전 스카우트 근절과 지원서 폐지, 대학스포츠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외적인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각 종목 대학리그가 올 한해 이룬 성과 보고도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대학농구리그는 후원사 추가 유치와 대학농구리그 경기기록실 운영이라는 성과를 내었음을 밝혔다. 또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내용 중 지원서 폐지 등 수정된 내용이 있음을 안내했다. 이 내용을 언급하며 새로운 선발 요강이 각



대학에 시달렸음을 공시했다. 더불어 학생선수의 진로취업 안내를 위한 스포츠 취업백서 역시 발간과 배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포츠TV 개국, 홈페이지 개편, 대학스포츠 블로그 및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등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나열했다.

2012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에 이어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2013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도 사업 계획으로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사업에 주력, 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학스포츠 현장 목소리 청취,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대학배구리그의 확대 개편도 공시되었다. 2부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남대학교는 1부 대학으로 승격되고, 대학배구리그 참여 팀도 확대될 예정이다. 2013년도 사업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안은 총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총회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건 상정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안건 상정 이후 장호성 회장은 총회를 마무리 지으며 각종 유니버시아드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근 대학야구에서 불거진 금전 스카우트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금전 스카우트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했다.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 거행

총회에 이어 곧바로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와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 선정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KUSF 설립 이래 처음 선발한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로 축구 김병수 감독(영남대), 농구 이민형 감독(고려대), 배구 이상열 감독(경기대)이 선발되었으며, 시상식을 통해 그간 공적을 기리는 표창패가 전달되었다. 한 해 동안 리그를 통해 우수한 경기 성과를 내고, 학생선수들을 성실하게 지도한 공을 인정받는 자리인 만큼 뜻깊은 순간이었다. 우수 지도자 시상식에 이어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었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 축구 권혁관(관동대 4), 농구 박재현(고려대 3)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축구 변혁주(명지대 3), 양형모(충북대 3), 농구 김민구(경희대 3), 배구 하장훈(명지대 3)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학생선수로서 뛰어난 경기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학업 성과를 내어 타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받아 시상대에 오르게 되었다. 선발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한국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 진행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 6월 설립 이래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51개 회원대학이 대학스포츠의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관한 자율적인 연구·협의·조정으로 학생선수가 대학교육과 스포츠를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주제의 연구 용역 공모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를 비롯한 학원스포츠 선진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진단과 개선·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와 한국 대학스포츠의 실정과 비전 등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이다.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스포츠사회학연구실(연구책임자: 경북대 체육교육과 임수원 교수)에서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경북대 스포츠사회학연구실(이하 경북대)을 연구자로 선정하였으며, 경북대에서는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이라는 연구 제목을 정하고,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시행 3년 차 시점에서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금후과제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13일, 경북대는 이 연구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의회가 주최하는 '2012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에서 이혁기 공동연구원이 이를 발표했다. 경북대 연구진은 연구 중간 보고서에서 대학스포츠 리그제 환경분석 및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위주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경북대는 대학스포츠 리그제에 관한 전반적 평가

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SWOT 분석을 실시했으며,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리그제 참여 학생선수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북대 연구진은 ▲학생선수 학업 ▲학생선수 경기력 ▲리그제 운영 실태 및 현황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 인식 등 4가지 범주, 99개 문항의 설문을 하고, 이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스포츠 리그제 만족도와 관련하여 학생선수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시를 찬성한다.'는 문항 평균은 3.4이었으며, 82.5%의 학생선수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시를 찬성한다.	82.5%(긍정+보통)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대학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	89.3%(긍정+보통)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이다.	71.1%(긍정+보통)

경북대 연구진은 IPA분석을 통해 리그제 개선방안을 위한 최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델파이분석을 통해 리그제 금후과제를 제시한 최종 보고서를 2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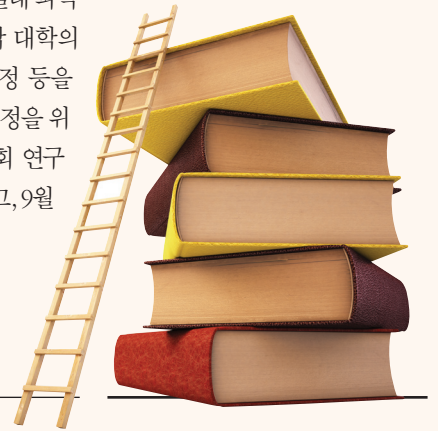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2년 5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시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 마련을 선언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과제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연구책임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욱 교수)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법학계와 체육계 교수가 주축이 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이하 법학회) 연구진은 2012년 9월 21일, 키포츠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에 돌입했다. 법학회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의의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목적, 취지 등을 재조명하며, 그 운영체계의 원리와 기본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하위 운영 규칙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회 연구진은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대학스포츠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자 대학스포츠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자 인터뷰, 미국, 일본, 독일의 선진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정되는 규정이 대학스포츠 현장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대학스포츠의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관련 문헌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에 역점을 두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2 대학 경기지도자

워크숍'에서 장재욱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경기지도자들에게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진행을 위한 현장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협의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각 대학 운동부 운영 실태 파악을 돕고자 회원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 각 대학의 체육위원회(부·실) 규정, 체육특기자 규정 등을 취합, 정리해 연구진에 전달하는 등 규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법학회 연구진은 3월 중 이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9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선발, 시상하였다. 이번 선발은 도입 3년 차를 맞이한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현장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선수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공적이 있는 우수 지도자와 “공부와 운동 병행하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우수한 학업성적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의 지향점인 ‘공부와 운동 병행을 통한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2011년, 사상 최초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학업성적과 경기성적 모두 우수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발굴, 시상한 바 있는 협의회는 2012년에는 그 시상 범위를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에 공적이 있는 지도자까지 넓혔다.

2012년 10월 말, 협의회는 51개 회원대학에 선발 취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와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추천받았다. 지도자는 총장 추천서와 공적 조서를, 학생선수는 총장 추천서, 자기 추천서와 2012학년도 1학기 말까지의 성적표를 제출하였고, 협의회는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로는 영남대 축구부 김

병수 감독, 고려대 농구부 이민형 감독, 경기대 배구부 이상열 감독이 선발되었다. 영남대 축구부 김병수 감독은 지도 방법에 관한 꾸준한 연구로 U리그에서 괄목할만한 성적 향상을 이루고(2011 U리그 챔피언십 20위 → 2012 U리그 챔피언십 3위), 학생선수가 학업과 자기계발에 주력하도록 지도·지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고려대 농구부 이민형 감독은 ‘3C Strategies based Coaching’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통(Communication), 관계(Contact), 배려(Consideration)를 기반으로 학생선수가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 철학을 실천한 점, 경기대 배구부 이상열 감독은 2012년 부임 후 학생선수 개개인의 역량 배양으로 출신 수범하는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어학 수업 등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점을 각각 인정받았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는 관동대 권혁관(축구), 고려대 박재현(농구)이 최우수상을, 명지대 변혁주, 충북대 양형모(이하 축구), 경희대 김민구(농구), 명지대 하장훈(배구)이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의 영광을 누린 이들은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열린 시상식에서 협의회 회장 명의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우수 지도자는 200만 원의 장려금,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 학생선수는 200만 원, 우수 학생선수는 100만 원의 장학금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2012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



관동대 축구부 권혁관

지난 5월, 대학스포츠 블로그에서 학업 우수 학생선수로 인터뷰했던 관동대 권혁관. 그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2012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축구 부문 최우수 학생선수로 선발되었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는 한층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프로’의 꿈을 이루어서인 듯했다. 먼저 최우수 학생선수로 뽑힌 소감을 묻자 “4학년 2학기 때는 드래프트가 코앞이다 보니 예전보다 학업에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웃어 보였다.

노력형 인간, 권혁관

권혁관을 논함에 ‘노력’과 ‘성실함’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이다. 학생선수로서 공부도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승부형’이라고 평했다.

“제가 수업에서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요. 그저 수업에 빠짐없이 들어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하는 스타일이죠.”

운동보다 공부를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흔들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이렇게 상도 받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웃음).”

공부와 운동에 대한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와 계획을 실천해왔다는 권혁관. 그러나 그의 직업은 축구선수이기에 ‘대학 시절 공부보다 운동에 더 집중할 걸...’하는 후회를 하진 않았을까. 이에 대한 그의 답은 ‘아니다’이었다. 그는 수업 참여 시간만큼 개인 운동 시간을 늘려서 운동했고, 수업이나 공부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본받아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추억은 방울방울

‘관동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09학번 권혁관’은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간의 대학생활. 공부를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는 펜 잡는 것조차 어색한, 평범한 운동선수였다. 그런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었다.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친구는 염찬진이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처음에 축구부였는데, 축구를 그만두고 일반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찬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찬진이가 워낙 성실해서 저도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또 유재원 후배와 홍문화 선배도 제 절친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늘 붙어 다녔어요. 다들 일반학생이지만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학업 면에서 저를 많이 도와준 이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팀 프로젝트와 리포트는 대학생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다. 권혁관 역시 ‘사회체육지도자론’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경험해보았다. 많은 학생에게 팀 프로젝트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로 기억되기에 심상이지만 권혁관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과목에 걸맞게 ‘내가 지도자가 되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팀 프로젝트로 하는 실기과제였어요. 저까지 9명이 한팀이 됐는데, 저희 축구를 지도하기로 했죠. 운동장에서 드리블, 슈팅, 패스, 킥



이런 식으로 조를 나눠놓고 2인 1조로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팀 프로젝트였어요.”

리포트에 관한 기억도 더듬어 보았다. ‘스포츠사회학’은 일반학생도 많이 힘들어하는 수업이다. 매주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손글씨로 리포트를 적어 내야 했다. 처음에는 과제가 버거웠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갔고 성실하게 리포트를 써냈다. 결국, 그는 그 수업에서 A+를 받았다.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알려준 수업이었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스포츠사회학’을 꼽은 권혁관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내 “그런데 후배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요.”라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스포츠심리학’은 후배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스크랩을 하는 ‘스포츠심리학’ 수업의 과제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20대의 초입에서 방향하는 후배들 역시 그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확실히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최우수상 수상!

관동대학교 홈페이지에는 권혁관의 수상에 관한 기사가 있다. 관동대 박희종 총장은 권혁관을 불러 “관동대 축구부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뜻깊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없어서 조금 실망했다며 장난스레 웃던 권혁관은 이내 “총장님과 처장님께서 직접 칭찬해주시니 너무 뿌듯했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권혁관. 그에게 학업이란 어떤 것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학업은 저축이다.”는 멋진 답을 내놓았다. 하먼 할수록 쌓이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학업 역시 쌓이고 쌓여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또한, 학업으로 이룬 성취감과 자신감이 운동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2013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충주 험멜’에 소속된 프로선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권혁관은, 학업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는 곧 졸업하게 될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된다.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학과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 프로선수로서의 첫 시작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벅찰 법도 한데 대학원까지 병행할 것이라니! 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저는 운동을 그만둔 후에는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축구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마냥 쉽진 않겠죠. 하지만 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권혁관은 물론 프로선수로서의 꿈도 확고하다. 프로선수가 된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아 팀에 녹아드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업도 운동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가 학생선수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다.

“운동선수로서 운동이 0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업 역시 도전해 볼 만합니다. 뭐든 시작이 어렵지 차츰 적응하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프로라는 꿈을 이루었음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선수.

남들이 ‘과연 될까?’라는 물음을 던질 때 ‘하면 된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선수.

프로선수로서, 대학원생으로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권혁관의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응원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태경



고려대 농구부 박재현

2012 농구대잔치 결승전에서 고려대가 상무의 109연승을 저지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 중심에서 고려대를 이끈 이는 올 시즌 고려대 농구부 주장이 된 박재현. 그는 농구대잔치에서 우승컵을 따내면서 주장으로서 인상 깊은 데뷔를 했다. 또한, 얼마 전, 한국대학스포츠험드협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농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아 지난 연말 겹경사를 치렀다. 농구면 농구,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무엇보다 빠지지 않는 ‘업친아’ 같은 박재현을 만나 학생선수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씩씩한 전교 회장 출신, ‘농구와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학업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런 상을 오랜만에 받는 감이 있어서 좀 낯설죠. 그래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서 받은 상이니까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박재현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농구를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학업과 멀어지긴 했지만, 시험을 보면 매년 평균 90점을 넘길 정도였다. 또 성실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지라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이자 맡았다. 약간 특이한 경력이 놀랍기도 했지만, 인터뷰 내내 자신감에 차 청산유수로 대답하는 그를 보면서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를 잘했던 만큼 공부를 계속할 욕심은 없었는지 묻자, “공부도 재밌었는데, 농구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농구에 흥미도 있었고, 감독님께서 잘할 거라고 용기도 많이 북돋아 주셨어요. 무엇보다 부

모님께서 적극 지지해주셨고요.”라고 답했다.

고려대는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에서 노승준(당시 고려대 농구부 4학년, 현 전주KCC)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배출해낸 적이 있다. 2012학년도에 박재현이 노승준과 마찬가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명맥이 2년 연속으로 이어졌다. 수상 당시 박재현의 학점은 4점대. 이번 수상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자랑한다.

“코치님이 제 학점을 보시고 승준이 형처럼 상 한번 받아보라고 추천하셨어요. 저도 약간은 기대하고 지원해봤는데, 수상했더라고요. 그것도 최우수상을!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저도 좋았어요. 운동부 학생이 학업 우수상을 수상하긴 어렵잖아요. 지도 교수님들이나 동기들이 이 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는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많이 축하해줬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

“중, 고등학교 때는 한 번만 수업에 빠져도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흥미도 없어지고, 그런데 대학 강의는 체육학, 건강관리와 같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거나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또,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박재현뿐만 아니라 고려대 농구부 학생선수들은 꼬박꼬박 강의를 듣는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많은 도움을 준단다. “학



교에서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수업이든 과제든. 운동부 수업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가 제일 잘되어 있을걸요?”라며 자랑도 한다.

대학에 와서 박재현이 배운 것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 그 자체만은 아니다. 물론 체육학 전공과목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운동실습과 같은 실습도 했지만, 박재현은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특히 집중한다. 박재현에게 교수님들 말씀은 ‘삶의 지혜’다. “교수님들은 강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것, 느낀 것들을 말씀해주시곤 해요.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덧붙여 말씀해주시는 편이죠. 교수님들이 충고해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노트나 휴대폰에 따로 메모해놓아요.”

리더십이란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이다

한 교수님께서 ‘리더십이란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 “집단을 이끄는 리더란 힘든 일도 참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리더라는 자리가 쉬운 게 아니고, 리더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시즌 고려대 농구부 주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뜻을 서서히 몸과 마음으로 느껴가는 중이에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치열한 경쟁이 치러질 텐데 주장으로서 먼지를 뒤집어쓸 각오가 되어있는지 물으니, “당연하죠. 기대해 주세요!”라고 시원스레 답한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 정규 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아마 농구최강전, 농구대잔치를 포함한 농구 대회에 거의 다 참가하는 만큼 1년 내내 경기를 준비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농구선수로서 경기도 중요하고, 학생인 만큼 강의에 참여해 좀 더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기에 쉽다. “저는 일단 운동선수니까, 프로 지명 문제도 있고... 운동에 집중해야죠. 4학년 때에는 교생실습도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일정이 더 빡빡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한 한 수업은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이 많아야 교생실습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지금은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더 배우고 싶어요.” 박재현은 욕심이 있어 보였다. 좋은 의미다. 그 욕심이 그가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한해를 앞두고 계획을 물었다. “고려대학교 농구부를 대학농구 무대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요.” 질문하자마자 주장으로서 당찬 포부를 밝힌다. “농구대잔치에서 패기 있게 우승한 것처럼 2013년에도 고려대 농구부가 활약할 거예요. 그동안 우승을 몇 번 놓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선수들 모두 다잡고 있어요.” 이어 교생실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선배 형들



이 교생실습을 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궁금했어요. 그동안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실습 나가면 제가 가르침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벌써 기대돼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지 살짝 상기된 모습이었다.

박재현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농구 분야이든 타 분야이든 그가 속한 분야, 그가 걷는 길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 멀리 볼 필요가 있을까? 그는 고려대 농구부 주전선수로서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팀 내 최다 시간을 출전하며 전광석화처럼 코트를 누볐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동료들을 지휘하는 것. 가드라는 포지션을 맡은 그의 임무다. 코트 곳곳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득점의 과반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스타전에서는 ‘3점슛 콘테스트 1위’ 타이틀을 거머쥐고, 지난해 연세대와 의 정기전 때는 ‘미쳤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경기를 지배하기도 했다. 주장으로서 남은 일 년 동안에도 코트 곳곳에서 빛을 내며 동료들을 지휘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은 앞으로 프로에 가서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자신감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그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박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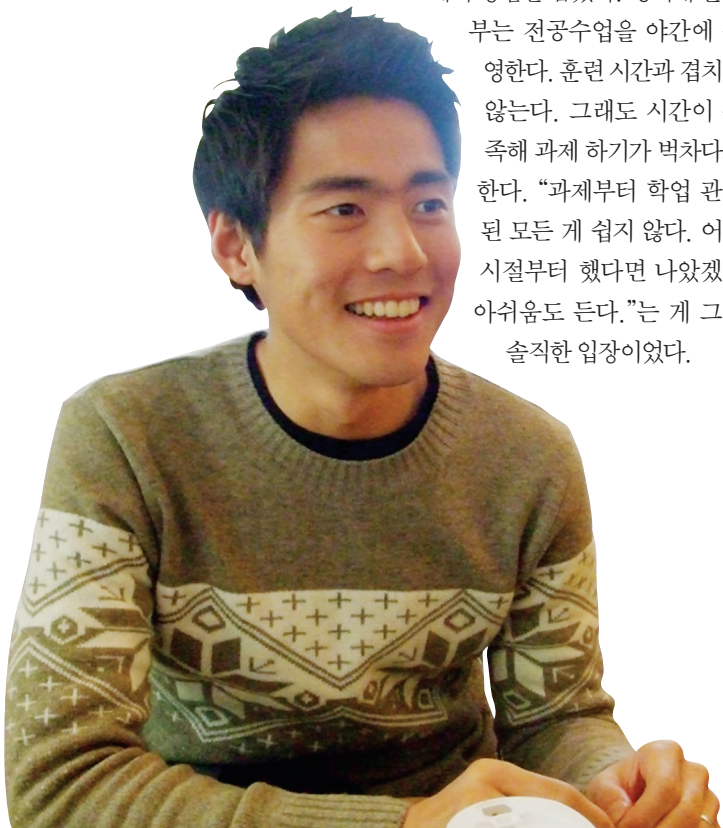
명지대 축구부 변혁주

어린 시절 축구선수나 과학자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 수업 과제로 주어진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을 "먼저 나서서 추진하는 저돌적인 적극성보다는 차분히 준비하는 침착함으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편"이라고 밝힌 한 축구선수가 있다. 2012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상을 수여한 학생선수 변혁주, 그의 학생 그리고 축구선수로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힘들었지만 미리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역시 성적 장학생들의 비법은 한결같다. 변혁주가 밝힌 우수 학점의 비결이다. 그의 학점은 4.3 만점에 3.8. 리그가 도입된 이후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선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다. 변혁주는 남들보다 다소 늦은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유소년 클럽에서 뛰다 발탁돼 축구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중학교 입학 후 공부를 전혀 하곤 했지만, 훈련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책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 후 수업에 꼬박 꼬박 출석하고 있다고 했다. "리그 조 편성이 권역별로 묶여 있어 거의 당일 왕복이 가능해 경기 전날도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며 리그

제의 장점을 꼽았다. 명지대 운동부는 전공수업을 야간에 운영한다. 훈련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과제 하기가 벅차다고 한다. "과제부터 학업 관련된 모든 게 쉽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했다면 나았겠다 아쉬움도 든다."는 게 그의 솔직한 입장이었다.



"프로 진출은 극소수, 공부는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2013년 K리그 신인드래프트의 '취업률'은 28.4%. 운동을 중도 하차한 친구들까지 포함한다면 '축구'로 취직한다는 건 참 어렵다. 운동이 전부였던 '엘리트체육인'은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는 학업이 쉽진 않지만, 운동과 병행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꼽은 과목은 '운동심리학'이었다. 그는 수업을 들으며 "경기 중 신체로 느꼈던 기억을 이론을 통해 확인하고 반대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경기 중 신체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수업에도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선수 이후의 삶으로 지도자, 개인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진로를 그려두고 있었다.

변혁주가 스스로 찾아 하는 공부가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해 갈 수 없는 영어였다. 매일 아침에 전화영어를 통해 회화를 늘리고, 교재를 통해 읽고, 쓰고, 듣기를 반복한다. "전지훈련 때도 책과 영어 단어장은 꼭 챙겨간다."는 그는 숙소에서도 쉬는 시간을 틈틈이 쪼개 공부 삼매경에 빠지곤 한다.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일까. "주로 자기계발서나 자서전을 읽는다. 책을 통해 자극을 받는다."며 그 효과는 권당 약 한 달 정도 이어진다고 한다. 최근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밝혔다. 이 책의 내용은 꿈을 실현하는 과정의 이론과 실천에 관련된 내용. 그는 일반학생이 부러운 점 중 하나를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미 '공부와 운동 병행'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초월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진중히 숙고하고 있는 그는 어느 일반 대학생과 다름없었다.

변혁주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라는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명언을 가슴 속에 담고 산다. 한다. 그에게 "이 명언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을 향해 도전하자는 의미."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현실인 대학 학생선수라는 신분을 통해 많은 걸 얻고 있다고 한다. 올해 부상은 그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다. 2013년엔 '미리 준비하는' 변혁주 학생선수가 올해 보여준 상아탑에서의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도 '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명선

충북대 축구부 양형모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대학 축구, 농구, 배구리그에 참여하는 학생선수 중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상을 수여했다. U리그에 참여하는 72개 대학 학생선수 가운데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한 충북대학교 축구부 양형모를 만나보았다. 2012년 카페베네 U리그 중부 2권역에 속한 충북대는 권역 5위의 성적을 거두어 아쉽게 챔피언십 진출에 실패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양형모는 충북대 주전 골키퍼로서 '선수'로서 누구보다 아쉬운 일 년을 보냈지만 '학생'으로서의 2012년은 성공적인 한 해였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상을 수상한 양형모의 학점은 4.5 만점에 3.98. 공부만 집중하는 일반학생들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고학점이다. 충북대 축구부 주전 골키퍼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로서 이런 고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운동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아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운동하고 공부하려니가 힘들기도 해요. 시험기간 때 시험공부를 하려면 남들처럼 밤새서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려면 힘들죠.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잘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답하는 양형모의 일과는 학생선수의 이상적인 하루다. 다른 학생선수들과 함께 새벽, 오후 운동에도 참여하며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 수업도 놓치지 않는다. 좋은 성적을 위해 시험기간에는 밤을 새우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밤을 새우며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덕에 양형모를 비롯한 충북대 학생선수들은 학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작년에도 충북대 축구부 손승현이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상을 받았다.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내년에 있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에도 충북대 학생선수가 포함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예상되는 이유다.

노력의 즐거움

양형모를 인터뷰하는 내내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명언이 생각났다. 그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학점을 잘 받는 학생은 축적된 배경지식과 같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양형모의 고학점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닌 ‘노력’이다. 매학기 15주간 진행되는 수업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배우는 즐거움도 자연스레 생긴다고. 그는 전 공과목인 트레이닝, 컨디셔닝, 생리학 등 운동 방법과 처방을 알려주는 과목을 배우며 선수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한다. 수강한 과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강의를 묻자 조별활동 1등을 했던 교양과목을 꼽았다.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여 듣는 교양과목에서 조별활동 1등을 해 좋은 성적도 받고 약간의 부상도 받았다고 한다.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적과 즐거움을 얻으며 학업을 즐기는 양형모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선수의 모범이다. 학업을 즐기는 만큼 결과도 만족스럽다.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넘겨 기성회비를 면제받는 혜택까지 얻기도 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말하던 양형모. 내년에도 ‘학생’과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노동균





경희대 농구부 김민구

2011·2012 대학농구리그 2년 연속 정규리그 MVP, 2012 대학농구리그 올스타전 MVP, 2011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대학농구 무대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학생선수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 시즌 경희대 농구부 주장을 맡은 김민구다. 대학 내 최고 선수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거의 휩쓴 김민구가 지난해 얻은 또 다른 타이틀이 있으니, 바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상이다. 농구선수로서 코트에서 멋진 활약을 함과 동시에 대학생으로서 학업 측면에서도 남다른 활약을 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농구로는 상을 몇 번 받아봤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상을 처음 받았어요. 기분이 좀 남다르달까. 친구들은 ‘오~!’ 하고 부러워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안 믿긴다는 눈치였어요. 결국엔 같이 기뻐해 주셨죠. 지도교수님들께서는 상까지 받았으니 내년에도 더 좋은 학점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제일 좋아한 사람은 저죠. 언제 이런 상을 또 받아보겠어요. 학업 관련해 상을 받으니까 전보다 수업을 더 열심히 듣게 되었어요.”

“농구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

경희대는 운동부 학업을 엄격히 관리한다. 김민구도 출석, 과제, 시험 등 무언가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운동부도 출석률을 꼼꼼히 따져요. 교수님께서 과제를 거의 매일 내주시고요. 열심히 한 과제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한번은 농구부 학생들로만 팀을 이뤄서 ‘대학리그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학생들의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리그를 뛰니까 잘 아는 부분이라 질문에 다 답변을 했죠. A+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그 과제와 발표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그때 진짜 신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희 조 과제는 완벽했어요.”

경희대 농구부의 일과는 빡빡한 편이다.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 점심 먹고 3시부터 6시까지 오후 운동, 저녁 식사 후 8시 반까지 야간 수업이다. 10시 조금 넘어 야간 운동을 마친 후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한다고 한다.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은 더 힘들다. 김민구는 경희대 농구부 주전이라 거의 매 경기 출전한다. 한 경기만 뛰어도 몸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 체력적인 면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보통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일과가 거의 끝나는 일반학생 입장의 기자가 얼핏 봐도 매우 빡빡한 일정이다. 그런 혹독한 일정을 견뎌내고 있기에 학생선수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기특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일 년 남은 대학생활, 아직은 배고픈 김민구

김민구의 머릿속엔 초·중·고 때보다 대학생활이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리그 MVP, 국가대표 선발 등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또 학생선수로서 학업에도 관심을 갖게 된 시기였다고 한다.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 년 남은 대학생활,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물었다. “제가 주장이 되고 가장 만행인 만큼 팀을 잘 이끌어 가고 싶어요. 2012년처럼 경희대가 대학농구 무대의 최강자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요. 프로 지명이 있을 텐데 좋은 팀에 가서 실력을 좀 더 쌓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어요. 또 가능하면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어서 추억 쌓고 싶어요. 대학생활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농구 무대에서 최강으로 꼽히는 경희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김민구가 올 한해도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민구가 농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닌 학업과 농구,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선수로 인정받기 충분해 보인다. 그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김민구’가 되길 바란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기자단 박소정

명지대 배구부 하장훈

‘주경야독을 실천하는 학생’

명지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학교 중 하나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실현을 위해 명지대 측은 학생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훈련으로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야간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각 운동부 감독들 역시, 학생선수들이 차질없이 수업에 출석할 수 있도록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만큼 수업을 대하는 하장훈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그는 효율적 시간관리를 위해서 전공수업을 야간에 수강한다고 전했다. 낮에는 체육관에서 연습을, 밤에는 강의실에서 학업을. 그의 일과는 ‘주경야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훈련 시간을 조정해 수업에 출석하고 있다고는 해도 해당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터. 실제로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선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벌어진 학업성취 격차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하장훈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고루 우수한 성적을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학술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을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은지 물었다. 그는 “운동부 학생들이 듣는 전공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또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하는 데 도움되는 과목(경기지도학)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집중해 들으려고 해요.” 그리곤 “오히려 교양 과목이 더 어려운 편이에요. 일반학생들과 함께 상대평가를 받다 보니, 좋은 성적 받기 더 어렵더라고요.”라고 덧붙였다. 운동부 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교수님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명지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학교와 지도자의 지원에 보답하고 있으니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에 충분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명지대 측과 학생선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훈련 시간을 조절한 류중탁 감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교내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서 개인 학습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하장훈의 하루는 참 쉴 틈 없이 ‘빡빡한 시간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쉴 시간이 적은 게 가장 힘들었어요. 또 수업이 많은 날엔 운동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런 날이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운동으로 성적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공부하느라 (경기)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이지요(웃음).” 학업과 운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스스로는 꽤 힘들었던 모양이다.

‘강의실 밖, 더 넓은 세상으로’

그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도 마음 한편에는 ‘진짜 캠퍼스라이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제 곧 4학년이 되는데 MT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졸업 전에 자리가 마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 학연수를 많이들 가더라고요. 저회는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없는 편이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연수를 가보고 싶어요. 가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지금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프로 진출 후 용병과 직접 대화를 나눌 만한 실력이 아니라며, 직접 대화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012년 추계대회부터 명지대 배구부의 주장 역할을 맡았다. 남들보다 일찍 주장 타이틀을 달고서 주 공격수 역할을 해야 했으니,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짐작조차 어렵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면서 동시에 우수한 학업성적을 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2012년 한 해 그가 학업과 운동에서 보인 성장세만큼, 2013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2013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계획

한 단계 수준 높은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운영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정상화 실현의 중심축인 이 리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더불어 협의회 기회의 능력,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경기 참여자의 의식과 실행력 등 여러 요소가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리그제 도입 4년 차를 맞은 2013년도에는 리그제 시행 제 2기의 첫해라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협의회가 실시한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 연구 결과를 적용, 지난 3년간의 리그제 운영 경험에 더하여 더욱 내실 있는 리그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 눈높이에 맞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과 운영

각 대학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대학 운동부 관리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각 대학의 입장을 강조해 만든 경우가 많았다. 대학스포츠는 대학 간 경기, 학생선수 선발,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 보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는 어느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현재 각 대학의 운동부 관리 규정은 앞서 언급한 학생선수의 학사 관리와 권익 보호 면에서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전반적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체계의 원리와 기본을 구성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어느 대학이나 수급이 가는 규정을 만들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일반 지식과 법제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관련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현행 대학 운동부 관리 규정을 분석하고, 외국 선진 사례를 참고로 대학스포츠 선진 시스템을 채택, 해당 대학들과의 연구·협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대학 실정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담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대학스포츠 아마추어리즘과 윤리사항 ▲대학스포츠 활동에 관한 준수사항 : 학생선수의 선발, 학사, 복지, 경기 일정, 훈련 일정 등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 규정: 자격, 채용, 처우, 책무 등 ▲대학스포츠 체육행정부서 규정: 주요 표준 기능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 규정: 각 대학의 역할과 수입 배분 기준 ▲대학스포츠 시설 규

정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이행 및 제제 규정 등을 포괄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KUSF 규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3년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집행 원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학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적 개정 절차를 거쳐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이 대학스포츠 정상화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스포츠 종합 홍보를 통한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사업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3년, 설립 만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브랜드 콘셉트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전략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의회의 가치 제안은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과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정상화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스포츠의 공익성과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종합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다.

우선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를 중심으로 대학스포츠의 공익성과 아마추어리즘 공유를 목표로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강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대학리그 미디어데이 및 시상식 개최 ▲대학리그 UCC 및 사진 공모전 ▲대학리그 공식 포스터 및 가이드북 발간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하는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협의회 정기 소식지 발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브랜드 강화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발간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진로취업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홍보 활동이 단순히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를 위한 유기적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새로운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운영



2012년이 대학스포츠TV 개국 첫해였다면, 2013년은 대학스포츠TV 활성화 첫해로 삼고, 지난해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한 대학스포츠의 활성화, 정상화를 이루도록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대학스포츠TV 개국을 모토로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대학스포츠TV 자체 서버와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하고,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44경기 생중계 등 질 높은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대학스포츠TV 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크게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실천할 계획이다.

첫째, 인터넷 방송 사업이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의 기재가 되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영역을 대학스포츠 리그제 전 영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LIVE, VOD 서비스를 실시하고, 대학축구리그 VOD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학스포츠 리그제 종합 콘텐츠 서비스 실시로 인터넷 방송이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의 주요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자 한다.

둘째, 대학스포츠TV 촬영팀을 확대 구성하여 기존의 1일 1경기 중계 체제에서 탈피해 1일 2경기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스포츠TV 다채널 시대를 열 것이다.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인터넷 방송의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대학스포츠TV 기획 및 편성을 총괄하고, 보다 다양한 대학스포츠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대학스포츠 종합 방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대학스포츠TV 참여 기회를 넓혀 대학스포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 제고를 이끌어 낼 것이다. 스포츠 기자, 아나운서, PD 등 관련 분야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방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스포츠TV가 대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에 앞장설 것이다.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통한 협의회 재정자립 기반 구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은 (주)B스포츠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대행 권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학농구리그는 KB금융그룹, 한국코카콜라유통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공식 후원사를 유치하여 마케팅 수입을 거뒀다. 대학농구리그 도입 4년 차를 맞이하는 2013년에는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 기존 후원사와 더불어 신규 후원사 유치를 통해 그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리그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해당 종목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나 국내 대학스포츠 인프라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스포츠 인프라는 단순히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대학스포츠 소비자의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인프라 부족은 대학스포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축소시켜 대중매체와 후원사의 관심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대학스포츠 인프라는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발판으로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사실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관중이 찾아가는 경기장'이 아닌 '관중을 찾아가는 경기장' 콘셉트의 '이동식 코트를 활용한 대학농구리그 야외 경기'를 추진하고자 한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4개 대학 대학농구리그 경기를 열어 대학생, 동문과 더불어 일반대중에게 대학리그를 홍보하고, 대학 축제 기간 중 6개 대학 캠퍼스 내 야외 리그 경기를 추진하여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대학스포츠에 대한 붐업(Boom-up)을 통해 미디어 노출과 후원사 유치를 이루고자 한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 활성화·정상화·선진화를 위하여 대학스포츠의 공익성을 강조한 지속적인 브랜드 포지셔닝과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토대로 대학축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까지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강화 및 보안을 통해 재정자립을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AUSF 정기총회 참석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태국 Cha-Am에서 개최된 제7회 『AUSF(Asian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General Assembly』에 대한민국대표 및 AUSF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와 동시에 개최된 『The 2nd Asian University Beach Volleyball Championship』의 대회장을 맡아 대회를 이끌었다. 한편, 장 총장은 201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University Nacional Autonoma de Mexico, Universidad Nacional Agraria la Molina, 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등 멕시코와 페루 소재의 자매대학들을 순방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신임회장 선출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2012년 12월 21일, 학점 교류를 목적으로 전국 70개 회원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이 실시한 선거에서 참여 대학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다.

유병진 회장의 임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2년간이며, 임기 동안 온라인 공동 과목 학점 교류 활성화,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활성화, LMS호스팅서비스 이용 장려, 엄격한 교육 품질 관리, 회원교의 온라인 역량 강화, 공동 과목 청강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회원교와 협력하여 실현할 예정이다.

중앙대, 총장님표 김치 담가 드려요!



2012년 11월 20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이 중앙대 학생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국신 총장과 전 선혜 서울 학생지원처장 (청룡사회봉사단장)을 비롯

해 행정대학원 동문회, 여교직원 모임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 총학생회 임원, 청룡사회봉사단원과 재학생 등 총 110여 명이 참가해 김치 1,004포기를 담갔다.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중앙 가족이 나눔과 보살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모두에게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1,004포기는 15kg(약 5포기)씩 별도 포장돼 동작구 관내 시설 6곳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재학생 등에게 배달됐다. 김장을 마친 후 안국신 총장이 노랑진에 위치한 보육원 ‘성로원 아기집’을 방문해 김치 40박스(200포기)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성로원 아기집’은 중앙대 동아리 ‘사랑터’ 학생들이 10년째 봉사활동을 하는 보육원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방문해 1대 1 멘토링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담근 김치 중 일부(100포기)는 교내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2012 세계 한양인의 만남 개최



2012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양대학교 캠퍼스와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2012 세계 한양인의 만남』 행사가 개최되었다. ‘세계 한양인의 만남’은 1991년 미국 LA에서 처음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의 한양 동문이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킬로를 날아와 모이는 한양인의 대축제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및 세계 각지에서 6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했다.

9월 22일에는 국외 동문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캠퍼스와 의료원을 견학하며 대학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부산에서 본격적인 ‘2012 세계 한양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23일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은 두 팀으로 나누어 골프 대회와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4일 저녁에는 부산 벅스코에서 시상식, 문화공연 등 ‘세계 한양인의 만남’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임덕호 한양대 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공식 행사에서 총동문회장 양원찬 동문이 1억 원의 발전금을 쾌척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 동문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관동대는 2012년 11월 8일, 본교 스포츠예술대학 콘서트홀에서 국내 스포츠 분야 과학자, 현장 교사, 지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올림픽 문화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체육학회와 관동대학교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하이원리조트 등이 후원했다.

한편, 관동대학교는 2012년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 본교 50주년 기념과 1층 로비에서 『관동대학교 교직원 합창단 2012 송년음악회 (단장: 박희중 관동대 총장)』를 개최했다. 이번 [THE 올림# : 하나 된 우리, 더 큰 올림] 송년음악회에는 총 30여 명의 교직원 합창단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3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노래, 연주, 캐럴 등 다양한 공연을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세계대학사격선수권대회 전정희 감독, 유승상 선수 격려



강태범 상명대 총장은 2012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세계대학사격선수권대회'에서 상명대를 포함한 단체팀이 '속사권총 단체 은메달'과 '스탠다드 권총 은메달'을 획득한 것과 관련하여 전정희 감독과 유승상 선수를 격려했다.

강태범 총장은 10월 3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7회 경주코리아오픈 국제대권도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강상준 선수 등 상명대 태권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관계자들을 치하하기도 했다.

한편, 강 총장은 앞서 9월 7일부터 7일간 중국 하북과기대 및 연변 과학기술대를 방문하여 학생 교류 및 유학생 유치 등에 관한 교류 논의를 하고, 양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 박종선)을 접견, 학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교는 군사과학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관하여 공동 학술연구, 학생 및 교수 교류를 할 예정이며 각종 문화 및 체육 활동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관하여 공동 학술연구, 학생 및 교수 교류를 할 예정이며 각종 문화 및 체육 활동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 강연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2012년 12월 초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정 총장은 13일간의 출장 중 미주 동문회의 남가주지회, 북가주지회, 워싱턴D.C.지회, 뉴욕지회의 송년회에 참석하여 각 지역 동문을 격려하고 송구영신의 기

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정 총장은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초대를 받아 '아시아 대학의 부상 : 도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후버연구소 소장을 만나는 등 양교 간의 이해를 넓히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워싱턴D.C.에서는 우드로윌슨센터와 문서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초청을 받아 강연하고, 관련 분야의 유력인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QS 세계대학 순위 15위인 코넬대학교를 방문하여 양교 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학년도 교직원 추계연수(Self Consulting) 실시



류재민 동강대 총장은 2012학년도 교직원 추계연수를 13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직원 연수는 Self Consulting(자체 진단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Self Consulting은 대학일반(기획), 교무입학, 산학협력, 학생복지, 행정지원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심 분과에 참여한 교직원들과 발전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과별 위원장이 이를 전체 교직원들에게 발표한 데 이어 종합 토론, 강평, 건의사항 채택 등을 통해 전체 구성원들 간 소통과 화해의 장을 마련했다.

류재민 총장은 "임기 초에 Self Consulting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아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쉬움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대학 발전을 위해 교직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대학 발전을 위한 Self Consulting에 참석해 주신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중국 자매대학 방문, 필리핀 마카디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정량부 동의대 총장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중국 광둥지역의 광둥소관대, 광주중의약대, 심천대, 광둥영남직업대, 심천 직업기술대 등 자매대학과 한국총영사관을 방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왔다. 정 총장은 지난 7월에는 필리핀 마카디대 등 현지 3개 대학과의 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동의대 치위생학과는 최근 시행된 '제40회 치과위생사 국가 시험'에서 첫 졸업예정자 25명 전원이 합격하며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치위생학과 김혜진 학과장은 “2009년 부산 경남지역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개설된 이래 재학생과 교수가 산업체 현장 실습, 실무 위주의 1대 1 입실실습, 지역사회구강보건활동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것이 높은 합격 비결”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전문가 양성 위한 석·박사 과정 개설



박춘배 인하대 총장과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월 7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하얏트 호텔에서 항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항공산업시스템공학과 교육과정은 국내·외 항공 산업과 인천공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된 융·복합 형태의 공학 과정으로, 산업공학, 기계, 건설, IT 분야 등 4개 전공 트랙을 두어 이공계 전공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학부전공과 유사한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 교육과정이다.

박춘배 총장은 “항공산업시스템공학전공을 통해서 선진 첨단 공학을 위한 최신의 지식과 글로벌 인재상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산학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의 모집은 지난해 12월 중순

에 진행 되었으며, 입학식은 3월 4일에 열린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주세혁 선수 격려



김형태 한남대 총장은 8월 14일, 유니세프 행사에 초청받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와 유니세프 관계자들을 만나 아프리카 어린이 지원 사업(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7월 12일 정부 주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학생 창업인 공감마당’에 초청받아 창업 사례를 발표하는 한남대 재학생들을 격려한 바 있는 김 총장은, 8월 27일에는 본교 문과대학 창의홀에서 ‘2012 Start! 대학·청년 창업 500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2012년 8월 23일 오후 2시에는 런던 올림픽 무대를 감동의 은메달로 장식한 남자 탁구 3인방 중 주세혁 선수(32, 삼성생명)가 모교를 방문했다. 한남대 무역학과 99학번인 주세혁 선수는 오상은 선수(35, KDB대우증권), 유승민 선수(30, 삼성생명)와 함께 ‘2012 런던 올림픽’ 탁구 대표팀으로 출전해 런던 엑셀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탁구 단체전 결승에서 희귀성 난치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홍익대학교 제17대 임해철 총장 취임 및 대학로캠퍼스 준공



임해철 홍익대 총장은 지난 11월 29일,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대학로캠퍼스 준공식을 거행했다. 대학로캠퍼스에

는 교육동과 산학협력동을 비롯하여 국제적 규모의 전시장과 함께 700여 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소극장 등을 갖춘 대학로 아트센터(HDAC)를 개관했다. 지난 9월 홍익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임해철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내실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2005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